

합구무언이 유일한 상책이다

우리 나라의 옛 동화에는 교훈적인 내용들이 참으로 많다. 그중에는 마음세착한 토끼형제가 자기들을 잡아먹으려는 음흉한 송이의 달콤한 꼬임수에 넘어가 사냥장에서 총알을 모두 뿜은 탓에 잡혀먹힐 뻔했다는 동화이야기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자체방어와 생존을 위한 수단만은 소유해야 한다는 진리를 밝힌 이야기이다. 70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외세의 끊임없는 폭제와 침략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생존권과 발전권의 담보를 백배, 천배로 다지는 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며 자주권행사이다. 지난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일제의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해야 했던 수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세기를 이어 핵전쟁위협을 가하면서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는 미국의 야욕을 짓뭉개버리기 위해 허리를 조여줄 무적의 절대방비를 마련한 우리 인민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우리 민족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살 수 있게 하는 정의의 보검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것은 공화국정부의 자주적결단과 결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외에 대한 더욱 뚜렷한 과시로 된다. 우리의 핵무기는 건국초기부터 세계 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으로부터 항시적인 핵위협과 공갈을 받아온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십년간의 간고하고 괴어린 투쟁으로 마

련한 억제수단, 절대방비이다. 문제는 이러한 초보적인 리치도 모르고 대세도 분간 못하는 천하머저리들이 이 지역의 남북강토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것이다. 최근에도 윤석열역적패당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담대한 구상》이라는것을 지꽃게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면 식량과 의로품을 비롯한 경제지원을 약속한다느니,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경제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느니 하는 허튼 나발을 계속 불어대고있다. 수천만 우리 민족의 안전과 번영, 천년대대를 담보하는 정의의 보검을 몇t의 쌀알이나 자른깎들과 바꿔보겠다는 천치들이 이 세상 어디에 있었는가. 지금 겪고있는 곤난을 잠시라도 면해 보자고, 애들이자고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미국놈들의 상투적인 설교와 궤변과 제재압박, 군사적위협을 믿이지 않음은 너무나 잘 알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독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선택을 두고 다른 이의의 견해가 절대로 있을수 없다. 《하지만》이라는 말은 더우기나 통할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우리의 국제인 핵무기를 놓고 더이상 요설을 부리지 않고 합구하고있는것이 유일한 상책으로 될것이다. 남조선문제전문가 김성

극악한 동족대결홍성의 발로

북침야망에 들뜬 윤석열역적패당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미쳐날뛰고있다. 최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윤석열역적의 집권 5년간 추진할 군사력건설계획인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작성놀음을 벌이고있는것이 이를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의 《핵심국방정책》이라고 하는 이른바 《국방혁신 4.0》을 먼저 완성하고 그에 토대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작성발표하려 하고있다. 이른바 《국방혁신 4.0》은 《국방연구개발》과 전력중장체계제설계, 《국방과학기술개발》, 새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의 확립, 구조와 국방운영의 최적화, 핵심정전력확보 등으로 구성된 5개 분야 16개 중목의 목표로 세분화되어있다고 한다. 특히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한국형3축체계》 구축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이러한 《국방중기계획》 작성



남조선문제전문가 김성

놀음은 집권 전기간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리고 벌리는 무모한 전력중장책등으로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북침전쟁도화선에 한사코 불을 달리는 극악한 동족대결홍성의 발로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군부호전광들을 내세워 도발적인 《북선제타격론》을 내리고 《북주적론》을 부활시켰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 《선제타격론》과 《주적론》에 링크하여 윤석열역적패당은 북침전쟁시연외인외세의 합동군사연습과 단독군사훈련대를 연속 벌려대는 한편 막대한 돈을 뿌려가며 무력중장에 발광적으로

가량된다고 한다. 역적패당이 전력중장책등으로 북침야욕을 실현해볼려는것은 도저히 이루어질수 없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미국의 대포함, 식민지화수입에 불과한 역적패당이 상상도 무시위 떠는 절대적힘을 지닌 공화국을 어찌보려 하는것은 가당치도 않은것이며 피멸을 자청하는 행위이다. 뛰어야 버리고 날아야 하루살이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저들의 무분별한 미치광이놀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제주제를 알이아한디

제 처지도 모르고 럽치지없이 행동하는것 혹은 쓸데없는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는것을 가리켜 오지람이 넓다고 한다.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이 꼭 그 꼴이다. 얼마전 역적패당은 《2022 서울안보대화》라는 막간극을 펼쳐놓고 내외의 《전문가》라고 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을 등장시켜 그 무슨 《북비핵화》를 논의하였다 한다. 상대도, 제 처지도 모르고 설치지는 풀수없는것, 초보적인 분별력도 없는 해피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빠른 시일안에 조약하는것으로 《한미동맹의 세계화》를 실현해볼려는 어리석은 홍성의 발로이다. 미국이 윤석열역적패당이나 심나라것들의 등을 두드려주는것은 그들이 고와서

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부러진 노루 한골에 모인다고 공화국의 무전막강한 위력에 집집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치않게 《북비핵화》를 속닥거리다니 상전의 이런 교활한 속내를 간파할수나 있겠는가. 윤석열역적패당이 벌려놓은 《2022년 서울안보대화》라는것은 빛갈도 보이기 전에 닙마가 되어버린 저들의 《대북정책》, 동족대결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공조를 구걸해볼려는 정치막간극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특히 그것은 미국과의 북침전쟁연승강화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범죄적망동이다. 온 겨레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사대매국적이고 동족대결적인 망동들을 날날이 기록해두고있다. 역적패당은 제 주제도, 풀수도 모르고 오지람 넓게 말아대다가는 어떤 비참한 말로가 차려지겠는지를 숙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리광철

칠칠야밤 《룡와대》골방에서 계승스레해진 거직을 거껴대며 미국산위스키(Jack Daniel)병을 기울이기를 그 얼마... 기분이 울적해질 때면 항상 《재크 다니엘》술병을 꺼내드는 역도이다. 술병에 찍힌 《USA》라는 글자에 눈길을 바느라내뉘에는 미국이 이것은 열기가 북받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것이 이제는 습관처럼 되어버린것이다. 지금 역도를 고쳐의 선언에 처넣은것은 얼마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직접 서명한 《인플레이션억제법》이다. 11월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내의 심각한 통화팽창을 감소시켜 지지표를 한개라도 더 그러모으려는 고심비긴 계획에 공감은 간다. 문제는 그것이 남조선의 전기자동차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것이다. 생각해볼수록 어이없는 일이다. 《대통령》자리를 차지한 후 고금리, 고물가, 고회환율의 3중고로 아우성치는 민심을 다독여 인기를 올려보려던노릇이 다름아닌 미국에 의해 파란될줄이야, 그것도 취임 100일이 되는 날에 뒤투수를 얻어맞은것이다. 부랴부랴 미국에 《정부합동대표단》을 무어 떠나보냈지만 왜선지 개운치 않고 불안감이 자꾸만 갈마든다. 바이든이 어찌서 다름아닌 우리를 전기자동차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는가.

도대체 무엇때문?!... 술잔도 돌리고 려도 도리도리하는데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귀전을 때린다. 카랑카랑하면서도 독기가 서려있는 목소리... 그대 펠로씨다. 여든그령의 흡사 귀전같은 그의 눈초리가 사정없이 옥박해온다. 식은땀이 내똥의 속에 지난 8월초 서울에 왔던 미하원 의장 펠로씨와의 전화통화가 떠오른다. 그대 곁에서는 라산때문에 펠로씨를 외면한 대가를

물론 펠로씨를 환대하지 않은것은 본의아닌 대실수이다. 그렇다고 바이든의 눈밖에 날 일은 없었을것이라고 자제위안해왔는데... 결국 펠로씨가 그토록 강조했던 《보담》이 《인플레이션억제법》이라는 철퇴였던 말인가. 허나 제가 아무리 미국의 권력순위 세번째라 해도 대통령을 제칠수는 없다. 아무렴?!... 하며 버릇처럼 도머리털을 짓는데 이번에는 김구리의 해사한 얼굴이 다가든다. 우리도 일본

넘는다. 속된 강정이나 마찬가지로 경제형편으로 돈주머니에 공손한 차있었지만 미국에만은... 내리던인 눈저축안에서 후막속의 비밀이 되새겨진다. (속채를 차고있는 삼성의 리재용에게 《8.15특별사면》대상에 넣어줄테니 대미투자를 하라고 회유한걸 아마 귀신도 모를것이다. 검찰대 귀고있던 부정부패자료를 가지고 SK도 미국에 투자를 투자하게 협박했지. 특히 현대차그룹의 목줄을

히려 제편에서 (뚝박)이고 (유감)이라니?, 《바이든에게 끄직한 (선물) 주고 받았은 적》, 《하와이까지 날아간 안보실장에게 (집에 들어가서 인플레이션억제를 잘 숙독해보라.)고 조롱한 백관 안보보좌관》, 《알고보니 남조선에 대한 대만의 7조원 반도체투자마저 가로챘던 미국》... 정계, 재계, 언론계의 비난과 아우조소로 서울장안이 소란해졌는 얼마후였다. (미국에 모든것을 바쳤는데 왜? 어찌서?)

치미는 분기를 누를 길 없어 한참이나 씩씩거리던 윤석열역적도는 눈알의 술상을 두팔로 오락 놀아버렸다. 그 서술에 그토록 예용하던 미국산위스키병이 휘뿌러져 지난 5월 바이든이 남조선방문기념으로 선물했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문구가 새겨진 탁상명패에 부딪쳐 산산조각났다. 《그래, 모든 책임은 내가 아니라 너에게 있어》라고 이죽거리는 바이든이 환각마냥 얼른거리고 《미국에 아부한것도 나고 배신당한것도 나니 벌을 받아야 할것도 너다.》는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고개를 떨근 역도의 머리우에서 길게 드리워진 줄무리들이 의미심장하게 흐느적거린다. 마치 교수대에 드리워진 울가미처럼...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특히 치르었다. 수십년동안 미국정계에서 《철의 녀인》, 《마녀》로 악명높은 로희한 펠로씨가 주름진 얼굴에 뺨은같이 차가운 빛을 내뿜으며 뒤라고 하였던지. 첫 여름휴가를 보내는 다망한 속에서도 시간을 내준대 대해 감사하다고 했던가. 귀족의 마중이 없었어에 우리 미국인들끼리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몰랐나. 품위있고 성의있는 의견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를 충분히 잘 알게 되었다. 이 환대를 절대로 잊지 않고 앞으로 꼭 보답할 기회가 있을것이라며 꼭 꼭 씩어말했지. ... 민정거리던 그 말투를 상기시켜보느라니 상판에 털벌레가 기어가는듯 오작하다.

처럼 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손까지 해가며 설명하러들던 정보원 원장의 모습이 얼른거리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한달전 미의회에서 추진하고있는 《인플레이션억제법》과 관련하여 일본이 미국과의 마후교섭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보고서를 올렸었다. 그대 호연장담했던 생각이 난다. 이제 보라, 뛰는 눈우에 내는 눈이 있어, 나만 믿으라고 큰소리를 치며 머뭇거리는데 그를 쫓다싶이하여 돌려보냈었다. 그럴만도 했다. 그렇게 득의양양해질 이유가 충분하였던것이다. 역도는 갑자기 회일이 북받쳤다. 내가 바이든에게 섬겨야할게 얼마인가. 무려 500억 US\$가 훨씬

조여 바이든의 정치적이반인 조지아주에 전기자동차공장을 회사하기로 한것은 정말 신중한 모안이었어. ... 어느 누가 미국을 이쳐려며 떠날수 있던 말인가. 하네비라도 이렇게까지는 효도를 못했었을것이다. 왜선지 두손까지 내들며 《행규》를 련발하던 바이든이 정경제 때문이다. (그래그래, 바이든이 내가 기울인 지성과 공헌을 생각해서라도 체면만은 봐줄것이다.) 《인플레이션억제법》이라는 방언이 들어맞은 뒤투수가 아직 빼놓고는 해도 된가 오해가 있었을것이라는 기대감이 술잔에 위스키가 되어 차오른다. * * 《금기야 달려간 (정부합동대표단)》에 미국이 오

회적점범》에 대해 응답자의 62.7%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경찰이 검진회의 허위경력을 무혐의로 처분한대 해서는 64.7%가 불공정한 처리라고도 주장하였다고 한다. 한편 응답자의 52.3%가 야당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지지해나서고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것은 지난 《대통령》선거때부터 시작되어 끝나지 않는 두 패당의 싸움에 신물이 난 민심이 이능이든 저능이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빨리 현재의 정치적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라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어떤 전쟁에서든 녹아나는 것은 애매한 민생뿐이 아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민생은 외면하고 서로가 상대방을 죽이기에만 날뛰는 야간의 퍼러지는 《전쟁》에 남조선인심도 극도의 환멸을 느끼면서 저주를 보내고있다. 권순남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친윤석열과 좌전 당대표 리준석사과의 정면대결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당내의 친윤석열과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의 헌장과 규약을 개정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내오고 반면에 리준석과 그 페키리들은 그것을 저지시키고 악을 써대고있다. 얼마전에도 리준석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친윤석열과의 당헌장과 규약개정놀음을 《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행위》, 《반헌법적인 쿠데타 행위》라고 하면서 공격해나섰다. 그에 합세하여 리준석의 측근들속에서는 이 기회에

전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불과 불이 오가는 참혹한 싸움관을 련상할것이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는 상대를 물어먹기 위한 여야간의 정치적대결이 도수를 넘어 그야말로 《전쟁》이라 불려오는 정도로 치열하게 변저지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금 윤석열역적도는 《국민의힘》과 악질보수단체, 경찰, 경찰것들을 내뿜어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리재명과 그의 처의 부배의혹사건 10여건에 대한 수사에 달라붙고있다. 한마디로 《리재명죽이기》에 총출동한것이다. 그것은 리재명이 제1야당의 신인대표로 선출됨으로써 지난 《대통령》선거때에 형성되었던 윤석열역적대 리재명의 대결구도가 다시 이루어진 데도 있지만 그가 저들의 현동지와 재집권이 가장 위험한 정치적적수로 등장한데 있다. 얼마전에도 윤석열역적패당은 경찰과 경찰을 내세워

그에 대한 소환조사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선거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류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재판에 정식 회부하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요 야당탄압이며 특히 전쟁을 선포한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안에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대통령실의혹대상 규명단》을 구성하고 윤석열역적도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역도의 죄행을 수정하는 《제보센터》까지 운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강경한 태도를 나오고있다. 특히 윤석열역적도의 녀편대 김진희의 부정부패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역도를 2차레나 검찰

지금 여야가 벌리는 치열한 《전쟁》의 벌길은 《국회》로 번져지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머리를 민고 저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저지시키는 한편 윤석열역적패당의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 주도권을 쥐려 하고 《국민의힘》페들은 어떻게 하나 야당대표의 부정부패의혹을 물고늘어져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민심의 눈초리를 야당에게로 돌려놓려 하고있다.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결과 야당이 추진하는 《김진

희퇴적법》에 대해 응답자의 62.7%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경찰이 검진회의 허위경력을 무혐의로 처분한대 해서는 64.7%가 불공정한 처리라고도 주장하였다고 한다. 한편 응답자의 52.3%가 야당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지지해나서고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것은 지난 《대통령》선거때부터 시작되어 끝나지 않는 두 패당의 싸움에 신물이 난 민심이 이능이든 저능이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빨리 현재의 정치적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라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어떤 전쟁에서든 녹아나는 것은 애매한 민생뿐이 아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민생은 외면하고 서로가 상대방을 죽이기에만 날뛰는 야간의 퍼러지는 《전쟁》에 남조선인심도 극도의 환멸을 느끼면서 저주를 보내고있다. 권순남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친윤석열과 좌전 당대표 리준석사과의 정면대결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당내의 친윤석열과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의 헌장과 규약을 개정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내오고 반면에 리준석과 그 페키리들은 그것을 저지시키고 악을 써대고있다. 얼마전에도 리준석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친윤석열과의 당헌장과 규약개정놀음을 《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행위》, 《반헌법적인 쿠데타 행위》라고 하면서 공격해나섰다. 그에 합세하여 리준석의 측근들속에서는 이 기회에

파멸의 낭떠러지로

《너 죽든 나 죽든 해보자.》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친윤석열과 좌전 당대표 리준석사과의 정면대결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당내의 친윤석열과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의 헌장과 규약을 개정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내오고 반면에 리준석과 그 페키리들은 그것을 저지시키고 악을 써대고있다. 얼마전에도 리준석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친윤석열과의 당헌장과 규약개정놀음을 《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행위》, 《반헌법적인 쿠데타 행위》라고 하면서 공격해나섰다. 그에 합세하여 리준석의 측근들속에서는 이 기회에

오죽하면 남조선인론들과 전문가들, 각계층이 《버림받은 대치로 치닫는 파멸적사》, 《당론관수습까지의 침착소중》, 《윤석열이든, 리준석이든 둘중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날싸움이다.》, 《《국민의힘》의 붕괴는 피할수 없었는가》라고 비난조소하고 있겠는가. 당권쟁탈을 위한 싸움, 세력권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는 《국민의힘》《국민의힘》패자는 역적당의 붕괴가 시간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망하는 집안에 싸움이 잦다는 말이 있다. 날로 악화되는 경제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누가 누구를 하는 치열한 권력싸움을 벌이면서 《국민의힘》패자들들은 운명의 총각결인 파멸의 낭떠러지로 거침없이 질주하고있다. 조성국

어쩌면 그러도 신통한가 급하면 서슴없이 꼬리를 잘라 위험을 모면하는 도마뱀에 조금도 찍지 않을 《룡와대》의 주인이로다 《대통령》감투를 쓴지 이세사 몇달 민생은 낭떠러지 지지불도 최악 폐진 자루에서 보리알 새듯 줄줄이 쏟아져나오는 부정부패 급하긴 급했던가보다 꼬리를 잘라버릴 궁리를 했으니 《인적쇄신》 그럴사한 명분에 《대통령실》 개편이란 간판아래 짐싸들고 쫓겨난자 몇이고 보따리 궁질자 이제 또 몇이나 뿔런지 저마다 도살장에 와있는 기분이라

꼬리나 자른다고

어쩌면 그러도 신통한가 급하면 서슴없이 꼬리를 잘라 위험을 모면하는 도마뱀에 조금도 찍지 않을 《룡와대》의 주인이로다 《대통령》감투를 쓴지 이세사 몇달 민생은 낭떠러지 지지불도 최악 폐진 자루에서 보리알 새듯 줄줄이 쏟아져나오는 부정부패 급하긴 급했던가보다 꼬리를 잘라버릴 궁리를 했으니 《인적쇄신》 그럴사한 명분에 《대통령실》 개편이란 간판아래 짐싸들고 쫓겨난자 몇이고 보따리 궁질자 이제 또 몇이나 뿔런지 저마다 도살장에 와있는 기분이라